Ⅵ. 參考文獻

Bantock, G. H, 1970. *Freedom and Authority in Education,* London. Farber & Farber Ltd

Berkhof, L., "The Christian School and Authority," in Jaarsma, C., 1953, *Fundamentals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Pub. CO.

Byme, H. W., 1977.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Milfond, Michigan, Mott Media.

De Graaf, A., 1968. *The Educational Ministry of the Church,* Nutley, New Jersey, the Craig Press.

Hylkema, G. W., 1953. "The Great Office of Teachers in Preparing the Child for the Complete Life," in Jaarsma, C., 1953. *Fundamentals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Jaarsma, C., 1935.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Herman Bavinck,* Grand Ro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53. *Fundamentals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opids, Michigan, , Wm. B. Eerdmans Pub. Co

———, 1961. *Human Development, Learing and Teaching,* Grand Ro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Peters, R. S., 1970. *Ethics and Education,* London, George Allen & Union Ltd.

Waterink, J., 1954. *Basic Concepts in Christian Pedag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 1958. *Theorie der Opvoeding,* Kampen, Y. H. Kok N. V., p. 11～21;1961. *Keuruit de verspreide geschriften,* Groningen, J. B. Walters, p. 1～30

Cquoted and remarked in De Graaf, 1968. *The Educational Ministry of the Church,* Nutley, New Jersey, the Craig Press.

高 神 大 學
論 文 集 第 10 輯
1982. pp. 139～152

信者의 內面省察의 當爲性에 관한 성경적 한 考察

— πνεύματι περιπατεῖτε의 이해 —

金　亨　奎*

◇ 목　　차 ◇

서　　언
Ⅰ. 본문의 이해
Ⅱ. 성령안에서 개인의 갈등
　1) 육체의 욕심
　2) 몸
　3) 사단
　4) 하나님의 훈련방법
Ⅲ. 신자의 자유와 속박
　1) 자유
　2) 속박
Ⅳ. 율법주의와 방종의 경향
결　　어

서　언

바울의 서신인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 : 16 *πνευμάτι περιπατεῖτε*를 한국어 개역 성경은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 말은 신자들의 모든 생활을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이 한국어 번역은 현대에서는 비교적 적게 쓰이는 표현인 "～을 좇아 행하라"는 말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번역의 내용이 본래의 뜻을 잘 담고 있지않기 때문

* 조교수

에 한국 교회가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었을 유익을 많이 놓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교회안으로 침투해 오는 기복(祈福)사상과 함께 편만해가는 신앙생활의 안일성 또는 형식화에 대한 재고를 위하여 특수한 상황속에 있었던 갈라디아의 신자들에게 요구했던 본문의 연구가 도움이 될 줄 믿는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체험적으로 신자의 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인 줄 알았다;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는 그들 중에서 임재하고 활동하는 성령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었다"[1]

I. 본문의 이해

본문은 영(灵), 성령(聖灵), 정신(精神)을 나타내는 πνεῦμα의 Dative형과 "걷다, 행하다"등의 의미를 가진 περιπατέω의 2인칭 복수 현재 명령법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πνεύματι가 성령을 나타내는 것은 문맥에서 명확히 밝혀지므로 이 단어의 의미에는 어려움이 없다.[2] 그러나 이 단어가 가지는 격(dative case)은 여러가지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3] 이것은 비유적인 길, 방법, 행위의 법칙을 나타내는 것으로 in, by, through의 번역이 가능하다.

두번째의 단어 περιπατέω는 신약성경에 처음 사용될 때에는 주로 "돌아다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예를들면 눅24 : 17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 그들이 걸어가면서(περιπατοῦντες) 무엇을 하였는지 묻는다. 복음서에는 이 단어의 특별한 다른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게 될 때에는 '어떤 인생의 걸음걸이를 걸어간다' 혹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뜻으로 사용하여 윤리적인 의미를 부가했다. 그는 κατά, ἐν, ἀξίως 또는 본문처럼 여격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과거시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된 것은 70인역(LXX)보다는 그 이후의 구약 번역에 더 많이 나타나며 바울은 주로 구약의 번역에서 이 용법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헬라 고전에서는 유사한 사용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4] 비슷한 요구를 말하는 같은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살전2 : 12,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 골1 : 10, "주께 합당히 행하여" : 엡4 : 1,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 엡5 : 8,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5] 등이다. 바울은 이 단어를 그의 서신에서 33회 사용하였다.

이 단어의 사용된 용례에는 모두 개인의 근본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세례와 깊은 관련을 가지며 이방인처럼 살면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지닌다. 죄안에서 걷는 생활을 끝나게 한다는 뜻이다.

1) F. F. Bruce, *The Defence of the Gospel* (Michigan : Eeardmans, 1973) p.72.
2) Charles J. Ellicott, *Critical and Grammatical Commentary on Galatians*, 5 : 16.
3) *Ibid.*
4) Gerhard Kittel, ed, *Theological Do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περιπατεω.
5) 그 외에도 엡 2 : 10, 5 : 2,15 ; 골 4 : 5 롬 14 : 15 ; 고후 4 : 2 ; 벌 3 : 17f 참조.

본문의 번역을 몇가지 살펴보면,

한국어 개역성경 : 성령을 좇아 행하라.
N. I. V. : live by the Spirit.
K. J. V. : walk in the Spirit,
R. S. V. : walk by the Spirit.
The Living Bible : obey only the Holy Spirit's instructions.
한국어 새 번역 : 성령이 지도하시는대로 따라 행하시오.
한국어 공동번역 : 성령께서 이끄시는대로 살아 가십시오.
Today's English Version : let the Spirit direct your Lives.
D. Martin Luthers의 독어역 : Wandelt im Geist

이러한 본문의 해석들은 모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성령의 이해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난다. 성령안에 걸어가라, 성령에 의해서 걸어가라,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라 하는 표현은 성령의 포괄적인 영향력 안에 있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데 대하여 성령이 지도하는대로 따라 행하라 혹은 이끄시는대로 살아가라는 표현은 성령의 밖에서, 완전히 독자적인 상태에서 가르침을 받거나 인도를 받는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번역상의 표현이 성령의 안인가 밖인가의 문제에서 우리가 가진 번역인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문장은 안팎이 모호하여 성령안에서 누릴 성도의 유익이 선명히 나타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II. 성령안에서 개인의 갈등

1) 육체의 욕심

성령안에서 걸어가는 신자의 생활은 바로 자기와의 격렬한 투쟁의 생활이다. 이것은 예수 믿고 복받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사상과는 전혀 다른 생활모습이다.

이 투쟁의 대상이 되는 자기 자신을 더욱 구체화 시켜 볼때 ① 육체의 욕심과 연약성을 안고 있는 ② 몸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생활이라는 말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것은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갈때 알게된 참된 자기의 원하는 것은 얻기가 힘들다는 말이 된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모든 면에서 깊이 대치하고 있으며 죄가운데 있는 본래의 육체적 욕구를 따라서는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육체의 만족 그것은 곧 신자의 원하는 바의 실패인 것을 연속적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그의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는 점이 더욱 구체화되어 진다. 따라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인도와 정면으로 대적하는 본래적 생활 경향이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생활과 상반되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물론 이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모든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육체의 왕성한 활동이 축복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

성경은 몸이 튼튼하여 잘 먹고, 잘 자고, 밝게 보고, 분명히 듣고, 예리하게 느끼는 것은 죽어가는 노인의 병든 육신보다는 복된 일로 가르친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 때 두 내외가 죽을 자들처럼 생식의 능력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기를 가지는 축복을 받았다. 성경은 이 일을 아브라함의 큰 믿음의 결과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아브라함이 타락하게 되었다거나 믿음이 약해졌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육체의 소욕이란 말을 생리적인 욕구 그 자체로 이해하여 무조건적인 금욕생활이 성화(聖化)를 향한 길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것이 로마교에서 성직자의 독신 생활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로마교의 관점에서는 결혼 그 자체에는 어떤 순결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본다. 성직자가 되기 위하여 수도원에 들어가는 소년이나 수도원에 들어가는 소녀는 '성이란 건강한 사람이 가지는 정상적인 생식 본능' 이라고 배우지 않고, 죄악적이며 부끄러워 해야할 것이라고 배운다. 로마교회가 가진 이 순결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생식본능 그 자체를 영적 진전의 원수로 간주하며 그것은 없애야 한다는 사고를 발전시켰다."[6]

육체의 소욕이란 말도 다른 모든 성경적 진리와 같이 인간의 타락과 회복의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J. I. Pack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종의 비정상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온 세상에 편만해 있는 일반화된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반응이다. 즉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을 순종치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믿지도 않으며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보편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죄, 사람안에 거하는 죄, 남아있는 죄성,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을 바꾸어 가며 사용되는 내용이다. 이것은 사람의 신체에 나타나는 알레르기 현상처럼 특수한 반응—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육체의 경향성—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도록 만든다. 죽음이라는 확실한 죄의 현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창조주를 순종치 않는 타락한 인간의 생활 성향, 이것이 육체의 소욕의 내용이다.

이러한 성향, 육체가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중생한 신자에게도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성숙한 신자일수록 더욱 강하게 자각하게 된다"[7]

성도는 그 신앙이 깊어 갈수록 육체의 소욕은 더욱 뼈아프게 느끼게 되고 이 잘못된 반응에 자신을 맡기지 않도록 더욱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추구한다.

이와같이 신자의 생활은 신앙연조의 깊이에 따라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갈등과 투쟁의 연속이다. 갈수록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와 먼것인 줄을 깨닫게 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게된다. 신자가 믿음 안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겠지만 그의 생활은 육신의 소욕이 괴롭히는 가운데 끝없는 투쟁을 계속해가야 한다. 지상에서 물체가 중력을 벗어날 수 없듯이 육체의 소욕은 죽기 전에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자는 항상

6) Loraine Boettner, *Roman Catholicism*, (London :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6,), p. 381.
7) John R. W. Stott, *Men Made New* (London : Inter-Varsity, 1973), p. 74.

자신을 살펴보고 가다듬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2) 몸

성령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에서 싸워야 할 갈등의 두번째 대상은 우리의 몸이다. 사람의 몸은 영육의 결합체이다. (Psyco-Physic unit) 이 둘의 결합은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인간을 말하여 영을 가진 육이라고도 하며 육을 가진 영이라고도 한다. 육신은 사람의 영성(灵性) 인격을 나타낸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죽음이 사람의 몸과 연결이 되어졌다. 몸이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몸이란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에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

몸은 영과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이지러져 있다. 신자의 생활중에서 육체의 소욕이 신자를 타락시키는 것처럼 몸이 또한 신자를 타락시킨다. 바울은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롬 7 : 24) 하고 절규했으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몸의 구속(救贖)을 기다리고 있다고 롬 8 : 23에 말했다. 신자가 중생했다고 해서 지상에서 이미 육체적 본질이 바꾸어진 것은 아니다. 신자는 각자의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는 자기 육신의 연약성을 알고 몸의 완전한 구속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더 나은 몸을 가지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되어질 변화의 때를 기다린다.

빌 3 : 10에는 이러한 내용이 더욱 결연히 나타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에 나타나는대로 그의 원하는 바 경험은 생명의 경험 뿐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는 고난을 단순한 부활의 능력을 위한 일시적인 과정으로 말하지 않고 그보다는 부활의 경험을 말한 후에 고난과 죽음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 즉 부활의 능력의 체험이 고난과 죽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와의 고난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고난의 교제속에 나타난다는 말이다.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 모순된 두 말이 지상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끝까지 강하게 남아있는 생활체험이다. 그는 매일 매일 육체의 죽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신자는 이렇게 생활의 상반된 두 면—죽음과 생명—에서 피할 길이 없다. 롬 7 : 24의 고통스러운 좌절감은 신자가 평생동안 외치게 될 탄식이다. 개종으로도 지상에서의 어떤 다른 영적 체험으로도 신자는 이 생명과 죽음의 긴장 이상의 상태일 수는 없다. 이 영과 몸의 싸움이 있을 뿐이다. 성령은 이 비참한 사람의 투쟁을 종식시키지 않는다. 도리어 신자속에 있는 성령의 임재와 활동이 이 투쟁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다. 성령의 사람이며 동시에 몸의 사람인 이 양분된 실상으로 부터 신자를 면하게 해 줄 어떤 더 고상한 수단이 있을 수 없다. 신자가 육체가운데 머무는 한은 그는 성령의 완벽한 생활을 즐길 수 없다. 피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 뿐이다. 죽음의 길 즉 전진하는 길 바꾸어 말하면 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령과 몸이 투쟁을 계속하는 길과 후퇴하는 길 즉 투쟁을 포기하고 완전히 육체의 수준에서만 생활하는 죽음만이

지배하는 길이다. 간단히 말해서 죽음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통해서 혹은 완전한 죽음을 통한것 외에는 없다"[8]

3) Satan

신자들에게는 죄의 경향성이나 몸의 연약성 뿐만 아니라 외적인 방해자가 있는데 그것은 Satan이다. 그것은 거짓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의 삶을 방해하는 방법을 택한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에게 이와같은 영적인 적에 대하여 알게 해서 그 결과 Satan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빛을 비쳐준다.

엡 6 : 11은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고 했다. Satan의 자세한 정체는 성경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므로 확정하게 말하기 어렵다. Satan이 누구이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계시하지 않으므로 그 기원에 대하여도 많은 이론이 있다.[9]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나타난 Satan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떤 해를 미치는가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Satan의 특징은 불가견성, 지적 탁월성, 강한 힘, 전적으로 부패한 인격이 그것들이기 때문에 중생하지 못한 신자를 악으로 이끌어 큰 손해를 입힌다. (엡 2 : 2,3 ; 골 1 : 3)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승리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이 Satan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건전한 신자는 결코 마술적 압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자를 벌하기 위하여 이 Satan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 (시 78 : 49). 길르앗-라못에서의 아합왕(왕상 22 : 23)의 경우와 아마겟돈의 군대(계 16 : 13, 14)가 그 증거이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Satan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베드로의 경우 하나님은 Satan의 키질을 통하여 참과 거짓을 구분하도록 했으며(눅 22 : 31), 욥이 당한 Satan의 시련은 욥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했다. (욥 42 : 5,6) 부도덕 했던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사탄에게 넘겨져서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러서야 영적이며 영원한 삶이 보존되도록 했다. (고전 5 : 5)"[10]

이와같이 마귀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을 수 밖에 없다. 신자에게는 이것의 속임이 있을 뿐이다. 신자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거나, 믿음을 갖지 않을 경우에 Satan의 속임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가게 된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순복할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을 말하며 이 두 말씀 사이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다. (약 4 : 7,8,9) 이와같이 신자가 마귀를 두려워 할 필요는 없으며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가운데서 대적하면 이기게 된다. 그러나 이렇

8) James. D. G. Dunn, "Romans 7 : 14~25 in the theology of paul" *Theologische Zeitschift* September/Oktober 1975.
9) Merill F. Unger. *Demons in the World Today* (Wheaton: Tyndole House publishers, 1972) p. 13
10) *Ibid*., p. 34.

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해도 사람은 때때로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지기 쉬우므로 이 대적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또한 신자의 투쟁적인 한 면이 된다.

4) 하나님의 훈련방법

성도가 가지게 되는 갈등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자기 부인을 통한 성화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훈련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는 마치 석공이 돌을 깎아서 작품을 만들어가듯이 성도를 자기를 깎는 고난 가운데서 성장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한다. 이와같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계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만큼 가혹하게 보이는 때가 없지않다.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은 죄와 살깊이 얽혀있는 성도를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간단없이 계속되는 육체의 불신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인정하여 따르게 만드신다.

"빌 2 : 12, 13은 신자가 승리의 생활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구원과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안 사람은 팔장을 끼고 보고만 있으면 된다는 모든 사상을 배제한다"[11] 이것은 물론 사람의 구원이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하여 이루어 진다는 말은 아니다. 그보다는 성화의 과정에서 사람에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다. A. W. Way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자극을 주고 결심할 힘을 주며 또한 선한 의지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을 행하는 주체는 성도이며 그는 이 행위로 복을 받게되는 구원의 대상이다. 손마른 사람을 예수께서 치료하는 복음서의 기록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주께서 그의 손을 펴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자연적인 반응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내가 전에도 수없이 해볼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의 마음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응답은 그가 손을 펼려고 했던 것이며 따라서 말랐던 그의 손이 펴졌다.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적을 실현하였다.[12] 모든 일을 주권적인 경륜을 따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순종하는 일은 사람이 하게된다. 사랑과 즐거움으로 항상 순종할 수 있기 까지는 늘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고 아파하는 일의 연속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목표는 너무 멀고 타락의 심도는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① 하나님의 거룩

옛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룩은 죄를 삼키는 불꽃으로 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도 설명한다.[13] 따라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항상 하나님의 격렬한 간섭이 뒤따르는 일이 되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성경적 사상은 두

11) J. Oswald Sanders, *A Spiritual Clinic* (Chicago : Moodypress, 1961) p. 77.
12) *Ibid*., p. 83.
13) Geerhardus Vos,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 Eerdmans 1971) p. 268.

가지이다.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절대적으로 구분이 되며 무한한 위엄 가운데 피조물 위에 높이 계시다는 뜻이다. 성경에서 또 한가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의 의미는 특히 윤리적인 면을 가진다. 그것의 기본적인 사상은 분리를 뜻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것은 윤리적인 악이나 죄로부터의 분리를 말한다. 이 윤리적인 거룩의 사상은 죄로부터의 분리라는 소극적인 뜻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 탁월성, 윤리적 완전성과 같은 적극적인 내용을 동시에 가진다. 하나님의 거룩은 도덕법에 계시되어지며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고 양심을 통하여 말하며 특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14]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는 절대적으로 거룩하다. 따라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표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 하나님 자신이 표준이다. 또한 그의 모든 속성이 거룩이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없다. (요일 1 : 5),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는 거룩을 그의 모든 창조의 충실함의 윤리적 필수조건으로 했다. 창조에서의 거룩은 충실함으로 나타난다. 거룩은 충실함이며 또한 온전함이다. 거룩을 뜻하는 영어의 Holy란 말은 Anglo-Saxon의 Halig, Hal, 즉 "Well, Whole"에서 왔다.[15]

그의 우주 가운데서 윤리적 온전성에 반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나 그의 미워하시는 것이 된다. 죄는 거룩의 반대이기 때문에 심판아래에 있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노하셨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맞서는 그 자체가 이 죽어가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 죄는 그 오염으로 우주를 질식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거룩한 행위이시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심판이 타락, 혼란, 파괴를 막는다.

② 사람에게 요구되어진 거룩

"하나님은 그 정도를 말할 수 없는 절대적 거룩이시다. 이 거룩은 그의 피조물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이나 스랍들과 지상의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의 준비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대적인 거룩이 있다. 이 거룩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 거룩을 나누어 주시고 덧입혀 주신다. 왜냐하면 어린양이 보혈을 통하여 이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교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므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만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절대적인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창조되지 않은 불꽃과 같은 격렬함 앞에 천사들이 얼굴을 가린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는 하늘도 깨끗하지 못하며

14)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London :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1) pp. 73. 74.
15) William Fitch,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 Zondavan, 1974) p. 111.

별들도 흠이 있다. 아무도 나는 거룩하다 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16]

이러한 거룩의 하나님이 히12 : 14에 보면 거룩함을 좇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여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직접적으로 요청된다. 성령만이 우리를 성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불붙는 축복과 깨끗함 앞에 설 수 있게 한다. 교회도 역시 성령에 의해서만이 흠과 점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 거룩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만이 알려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 영역이다.

자연인은 거룩을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중생한 신자에게도 성령의 사역을 매일 추구하지 않으면 붙들기 어려운 내용이다. 신자가 거룩의 지극히 희미한 부분이라도 알려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때에 가능하다.

욥은 하나님에 관해서 듣고 있었지만, 그의 고난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었을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42 : 5~6)

이사야도 같은 경험을 말하고 있다. 그는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았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자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섯 날개가 있는 스랍들의 노래를 들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한 천사들의 합창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하였다. 그가 본 이러한 모든 광경으로 인하여 경외감이 충만하여 그는 외쳤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였음이로다" (사 6 : 1~5)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순간 그의 모든 가식이 찢겨져 버렸다. 하늘의 왕의 무한한 영광앞에 그는 자신이 죄인이며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거룩의 생활은 하나님의 생활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룩의 의미를 안다는 말이다. 이러한 삶은 찾는 사람, 모든 피조물과 관계된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진 사람에게 열려진다. 이 거룩의 생활은 몇몇 기독교의 특권층을 위하여 특별히 사치스럽게 포장된 선물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참된 신자의 정상적인 상태여야 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 1 : 26, 27) 따라서 거룩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따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버린 후, 그리스도를 알게될때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운데 성도에게 나타나는 내용이다.

"신자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본 후에 믿음과 겸손으로 스스로를 감출 수 밖에 없다.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은 그가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 옛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때 모세가 바

16) T. W. Tozer, ***The Knowledge of the Holy*** (India : alliance publications) pp. 129, 130.

위 사이에 자신을 숨긴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상처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숨겨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터의 피난처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고, 징계하고 깨끗케 하셔서 그의 거룩에 참여케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안에서 거룩한 우리를 보신다."[17]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매일 어디서나 성도는 좀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부여하시고 입혀주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거룩하며,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 보다 더 큰 소원은 없다.(요17:7)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해도 성령이 그 중심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 : 2) 우리는 먼저 성령의 지배를 원하는 굶주림, 갈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허덕임 후에 성령의 충만을 얻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자기의 방법대로 하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모든 일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보호, 자기변명, 자기확신, 자기자랑, 자기인멸과 같은 죄를 비록 다른 신자들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해도 성령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것을 빼앗을 권리를 요구할 것이며, 그렇게 우리를 훈련할 것이다.

거룩의 한가지 증거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참 신자가 가지게 되는 가장 뚜렸한 미덕인 겸손의 태도이다 . 이러한 겸손은 신자가 하나님의 위대성을 발견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참된 겸손은 하나님과 깊이 관계된 것이다. 겸손은 **거룩한 눈멈**위에 머문다. 이 말은 태양을 오랫동안 쳐다보면 눈이 멀게 되는 그러한 눈멈을 말하며 이 사람은 이제 눈을 땅으로 향하여도 태양만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소경은 이와같이 하나님의 뜻만 보게되고 지상에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란다. 그에게 겸손과 거룩의 만남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매달려 허송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를 죽도록 한다.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죽게될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는 거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설정하신 목표에 접근해 가게 되어진다.

Ⅲ. 신자의 자유와 속박

1) 성령의 인도는 성도를 자유롭게 한다.

사도 바울은 고후 3 : 17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했다. 이것은 또한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하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애굽의 굴레에서 선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스

17) T. W. Tozer, *op. cit.*, p. 130.

스로를 계시하셨다. 참 神을 섬긴다는 것은 모든 우상숭배로 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뿐만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본래의 위치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의미의 자유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이다.

이 자유는 신약적 계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선언이다. 요 8 :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으리라"했다. 자유는 신약이 강조하고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중의 하나이다. 갈 5 : 1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사단의 능력으로 부터의 자유(막 3 : 27, 요12 : 31~36), 죄의 지배로 부터의 자유(롬 6 : 17), 율법으로 부터의 자유(갈 4 : 21~31), 죽음의 공포로 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히 2 : 15), 하나님의 구속받은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누리는 자유에 들어간다는 말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유의 가족중 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창조 그 자체가 부패라는 속박으로부터 풀려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한다(롬 8 : 21)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롬 8 : 2) [18]

이것은 성도 개개인에게 구체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상태의 변화이다. 이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도는 두가지 의미에서의 자유를 갖게 된다. 첫째는 죄의 능력으로 부터 벗어난다. 이제는 죄가 왕이 아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은 우리의 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둘째의 의미는 율법의 외적 억압에서 부터 벗어났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가진 그 엄한 요구에 응하도록 메이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부딪히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우리도 그 속에 갇혀 있었다. 이제, 죄를 진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우리는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났으며 불순종으로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만이 그안에 항상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 두가지의 실현된 것들을 파악하게 될때 즉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와졌으며 내적 죄의 능력으로 부터 자유로와진 것을 알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지러지고 어그러진 본성을 교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중생한 자들의 자유를 알게 되었고(요 3 : 3ff) 부활의 생명의 자유를 기뻐하며(골 2 : 12~13),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으며 (고후 5 : 17), 우리속에 거하는 성령에 의하여 우리 마음의 영이 새로와진다. (딛 3 : 5) [19]

2) 성령의 인도는 성도를 매이게 한다.

신자는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본질에서부터 변화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게 된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윤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한 자유의 내용을 온전히 알게한다. 이 자유는 매

18) William Fitch,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Zondervan, 1974)
19) *Ibid* ., p. 167.

임의 자유(the freedom of the found)이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말과같이 생각되지만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생활이 설명될 수 있는 유일한 말이다.

신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될때 그것은 상대방에게 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가지는 자유로운 사랑은 신의와 순결을 지키며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아끼는, 매이는 생활로 나타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활은 상대방을 위하여 바쳐진다. 따라서 신자의 자유는 어떤 종이 그 주인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고 살아가는 종의 자유와 같다. 바울은 여러곳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또한 그 분에게 매여있다. 그는 어떤 다른 굴레를 가지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는 영원히 그분의 종이기를 원한다.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서 본래 성령이 성자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완전히 드려진 것 처럼 성령안에서의 신자의 자유도 성령께 완전히 드려진 매임의 자유이다. 이러한 완전한 드림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속이 불가능하다. 신자는 자유롭게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신을 드려서 그 영광스러운 분에게 매이게 되는 기쁨을 누린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란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것—그리스도의 의, 거룩, 사랑, 봉사—에 매이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신자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또한 매인 사람이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이 살아야 할 날마다의 생활, 매일의 생활을 통한 그의 증거, 순간마다 그를 나타내는것 그것은 즐거움으로 짊어지는 신자의 십자가의 삶이다. (고후 5 : 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하려 함이니"

매임의 자유는 또하나의 의미를 갖게 된다. 신자는 자유로운 가운데 즐거움으로 매일 뿐 아니라 매여서 섬길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께 매이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따라서 성도가 성령안에서 살아갈때 끝없는 자유를 누린다.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섬기는 자유를 누리고 그분을 섬기는 가운데 받게되는 자유를 누린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만이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인도한다.

Ⅳ. 율법주의와 방종의 경향

1) 율법주의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서 만나게 되는 두가지 불행한 상태는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의 형식화와 방종에서 생기는 교회의 세속화 경향이다.

사람이 자유롭게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것은 제정된 교회법이나 교회의 관습에 매이는 율법주의와 구별이 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율법의 의무적인 준수가 아니라 참된 순종의 행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가운데 그와

동행하는 일이다.

개인의 신앙성장, 교회의 생동감 있는 발전에 방해가 되는 이 율법주의는 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서 생긴다. 또는 주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할 때 이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거기에는 세상을 새롭게 할 힘도,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연약한 인간에게는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위한 내적 성찰이 항상 요구된다.

2) 방 종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방종에 빠지지 아니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의 생활은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롬 6 : 13) 성령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매일 그의 모든 지체를 즐거움으로 드려서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는 많은 사람이 쉽게 빠지는 방종한 생활로 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이 지킬 수 있게 된다.

결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결혼은 하나님이 첫사람때 부터 제정하신 거룩한 생활상태이다. 지금도 이 법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신적이며 따라서 절대적인 법이다. 이 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다. 신자는 성령이 결혼외의 불륜의 관계와 같은 죄악의 행위로 부터 자기를 지키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성경을 믿을때 이 결혼제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혼에서 우리는 창조의 기본단위가 하나님이 주신 결합체인 남녀인 것을 보게된다. 만일 우리가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이 거룩한 결혼제도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저버리는 일이다.

만일 우리가 실용주의의 논리적인 결론을 따른다면 우리는 Dr. Robinson, Bishop of Woolwich와 같은 입장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그의 책 Honest to God에서 말하기를 예수에게는 불변의 모습이 없으며 따라서 기독교 윤리도 상황 윤리로 바꾸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그 결과 Dr. Robinson은 차타래이 부인의 사랑에 나타나는 D. H. Lowrence의 견해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Lowrence는 불변의 윤리가 갖는 절대성은 믿지않고 변화되고 진화되는 자연의 형태를 믿었다.[20]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때 우리는 계시의 진리를 강하게 붙든다. 신자부부의 사랑은 완전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전적으로 서로에게 매이는 사랑을 하게되며 이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될때 방종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서로의 사랑이 성령의 인도안에 있는 것이며 그때에는 범죄적 경향성이 무력해 진다. 이러한 생활영역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 낼 터전이 생겨나지 않으며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도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개개인 신자의 생동감 있는 믿음의 생활이 모여져

20) *Ibid*., p. 171.

서 순결한 교회가 이루어진다. 성령 안에서 교회의 방종, 타락, 세속화는 멀어질 뿐이다.

V. 결 어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는 말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은 섬약한 병아리가 어미닭의 품속에 있듯이 연약한 성도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속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복음이기도 하다. 이 걸음의 주체가 되는 성도는 죄의 경향성이 있으며, 죽음과 깊이 관련된 육체를 갖고 있고, 또한 주위에 미혹하는 세력이 있다. 거룩을 향하여 채근하는 하나님의 독려는 조금도 쉴틈을 주지 않는다. 계속적인 자기부인은 고통스럽고, 주의 제자의 길을 그만두고 싶은 유혹은 강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시험이 우리가 세상을 떠날때 까지 계속된다. 만약 한가지 시험이 끝나면 다른 모양으로 새로운 시험이 시작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때 끝없이 반대를 받고,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 여기에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적을 알고있는 신자만이다. 적의 접근을 탐지하고 그 공격을 반격할 수 있는 신자만이 안전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깊히 성찰하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일 뿐이다.

高 神 大 學
論 文 集 第 10 輯
1982. pp. 153~169

커뮤니케이션 原理와 信仰教育

姜 勇 元*

◇ 目 次 ◇

Ⅰ. 序 論
Ⅱ. 커뮤니케이션의 原理的 考察
Ⅲ. 커뮤니케이션과 信仰教育
Ⅳ. 結 論

Ⅰ. 序 論

信仰教育의 현장에는 대단히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教師들의 言語는 하나님의 眞理를 전달하고 學生들을 成長하도록 도와주는 의사전달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教師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學生들은 그 말을 듣지 않으며, 어떤 말들은 그저 허공을 치고 사라져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 또한 學生들에게 그 말이 전달된다고 해도, 그 말이 가지는 의미가 學生들에게 내면화되며, 學生들을 變化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된다. 이러한 現實을 감안하면서 筆者는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어온 커뮤니케이션의 原理가 信仰教育이라는 次元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되었다. 本稿에서 筆者는 커뮤니케이션의 一般的인 原理를 규명하고, 그 원리를 信仰教育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를 해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宣教의 문제와 연관시켜왔는데, 이 論文에서는 次元을 약간 달리하여 教育이라는 문제와 관련시켜 보려고 한다. 현재 커뮤니케이션과 교육의 문제를 다룬 글은 그 수가 대단히 희소하고 또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지않은 實情이다. 따라서 本稿역시 그 깊이의 천박성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하나의 시도에 불과한 것임을 밝혀둔다.

* 專任講師